

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15.31 (+72.85)	814.77 (+16.0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248 (-0.019)	1322.60 (-9.20)

metro® 경제

尹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의혹
입장 밝힌다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2월 5일 월요일

中 친환경선박 강공에 韓 기술 경쟁력 자신감

中 친환경 조선업 육성 청사진
2025년까지 체계·역량 강화

국내 조선업 입지 위협 우려에
기술 측면 글로벌 선두 자신

글로벌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친환경 조선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집중했던 중국이 국내 조선업계가 주력하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까지 꺾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가 시장 입지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쟁력에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조선산업 친환경발전 개요(2024~2030)'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조선업의 친환경 발전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조선기자재의 공급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친환경 선박 생산라인 형성을 비롯해 조선업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공급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현재 청다오베이하이조선소는 연간 16척의 LNG선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내외로부터 총 61척, 115만5700톤의 선박을 수주해 건조 중이다. 이 중 친환경 선박은 43척으로 전체 수주량의 70.5%에 달한다. 광저우조선소는 최근까지 수주한 선박 중 60% 이상이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메탄올 이중연료추진선과 LNG이중연료추진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에 국내 조선업의 입지가 위협받는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친환경 선박을 앞세워 올해도 활발한 수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HD현대는 지난 1월 울산 HD현대 중공업에서 1만 6200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네 머스크호'의 명명식을 열었다. HD현대가 세계적인 해운그룹 머스크로부터 수주한 18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선박이다. HD현대의 자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월 중남미 소재 선사인 아모니아 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아모니아 운반선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선박인 만큼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도 각각 2척의 아모니아 운반선을 수주했다. 또한 양사는 카타르 프로젝트 2차 수주 물량을 기다리고 있다. 카타르에너지는 삼성중공업 슬롯 16척, 한화오션 슬롯 12척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양사가 최소 10척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수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수주량에서는 앞서나가고 있으나 기술 측면에서는 국내 조선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박은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안정적으로 쌓는 것과 건조 경험치가 중요한 요소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설 앞두고 미리 성묘

설 연휴를 닮아 앞둔 4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뉴스1

인구 37개월 만에 증가... 일시적 현상 가능성

1월 총인구 5131만명... 5831명 ↑
울산·광주 등 일부지역 이례 증가
출생아 수 10개월 만에 최다 기록
사망자 수 급증가로 영향은 없어

내림세의 대한민국 인구가 3년 1개월 만에 처음 늘어났다. 이는 다만 울산과 광주 등지에서 지난달 이례적 증가를 보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부산 등은 감소를 지속하는 등 총인구가 증가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청룡의 해'를 맞아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10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총 인구는 5131만 명으로, 전달(5130만 명)에 비해 5831명 늘었다. 이는 2020년 12월 이후 37개월 만의 첫 인구 증가이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2월을 시

작으로 단 1개월분(2020년 12월)을 제외하고, 4년간 매월 감소한 바 있다.

울산이 +1만424명으로,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났다. 광주(+5569명)와 경기(+4429명), 인천(+3044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인구 1위 광역자치체인 경기(1363만 명)는 행정도시 세종과 함께 거주민 수가 유일하게 증가를 거듭해 온 지역이다. 반면 울산과 광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지역이어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울산의 경우, 산업체 다수 및 고용 관련 산하기관 등이 입주해 있어 인구 이동이 잦은 곳이다.

인천은 그간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역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300만454명이다. 서울 거주민의 이동을 비롯해 송도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등에 합입여

인천은 290만 명대를 수년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 밖에 세종(+419명), 충남(+390명)에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등 11개 지역은 지난달에도 감소를 거듭했다.

올해 1월은 출생아 수의 반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2만1407명으로, 지난해 3월(2만1911명) 이후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났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 출생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사망은 3만4420명으로 2022년 4월(4만985명)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인구가 자연 감소(사망-출생)했으나 주민등록인구는 증가했다. 등록외국인 수가 늘어나 자연감소분을 상쇄·가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매달 7만원이 보너스로!

돈 버는 파주페이

월 최대 70만 원 충전하면
7만 원 더 드립니다

2·5·9월
100+10만원

파주페이 인센티브
1년 내내 10%

3·4·6·7·8·10·11·12월	2·5·9월
최대 70만 원 충전 → 7만 원 발행	최대 100만 원 충전 → 110만 원 발행

파주페이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파주시 설정) → 카드 신청 → 우편 수령 후 등록 → 본인계좌 연결 → 금액충전, 소득공제 신청(고객센터) → 결제 → 이용내역 확인

[오프라인]
NH농협, 단위 농·축협 방문 → 신청서 작성(신분증 및 파주페이 실물카드 지참) → 현금 지급 → 카드 수령 → 소득공제 신청(고객센터) → 결제
※ 파주페이 오프라인 충전소는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 031) 940-4522 / 코나아이(주) 고객센터 ☎ 1899-7997

iOS

안드로이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시민중심** 더 큰 파주